

심상지리로서의 대동아(大東亞)

-1940년대 전반기 희곡에 나타난 반서양주의와 인종적 상상력-

이상우*

<차례>

1. 대동아라는 상상의 지리
2. 반서양주의의 극적 상상력
3. 인종과 여성, ‘슬픈 동양’의 이미지
4. ‘동양인’, 국민(國民)이 된다는 것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1940년대 전반기의 한국 희곡에 나타난 옥시덴탈리즘과 인종주의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40년대 전반기는 한국의 식민지 통치자인 제국 일본이 미국, 영국 등 서양 세력과 태평양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으므로 서양과 백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희곡작품이 특히 많았다. 이러한 희곡작품에는 반서양주의, 인종주의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특히 서양의 기독교, 물질 문명,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와 백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서양적인 것과 반대되는 ‘동양적인 것’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타나는데, 동양의 정신문명, 도의(道義), 미풍양속, 공동체주의를 칭송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하나의 정치적 담론으로 등장하는 일명 동양주의 사조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동양주의는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정치 이념을 위해 봉사하는 담론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대동아라는 상상적 지리 관념’에 토대를 둔 것인데,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반서양주의, 인종주의 사상이 더욱 더 심화되었다. 본고는 1940년대 전반기에 연극으로 상연된 희곡들 가운데 임선규의 <병화>(1942), <대벽길>(1945), 조전석의 <개화촌>(1945) 등에 초점을 맞춰 그 안에 나타난 옥시덴탈리즘과 인종주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그것이 그러한 관념을 여성 인물의 형상화와 어떻게 결합시켜 대중성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동양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동양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시 한국인은 어떻게 ‘국민되기’를 요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옥시덴탈리즘, 인종주의, 심상지리, 대동아, 동양담론

* 고려대학교 교수

1. 대동아라는 상상의 지리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사상은 ‘대동아(大東亞)’라는 상상적 지리 관념에 기반을 둔 제국 일본의 패권주의, 팽창주의적 산물이다. 이 블록개념으로서 대동아라는 지리 관념은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시기에 발흥하여 1940년대 초반 태평양 전쟁기에 걸쳐 널리 유포된 하나의 상상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일전쟁 직후 일만지(日滿支, 일본·만주·중국) 블록 개념으로 성립된 ‘동아신질서’가 1940년대에 들어서 남방권(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블록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대동아신질서’로 확장, 변경되었다. ‘대동아공영권’ 사상이라는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¹⁾의 지리 관념의 뿌리는 멀게는 1880년대 메이지 시대에 이미 싹을 보인 현양사(玄洋社), 흑룡회(黑龍會)의 팽창, 침략주의 사상과 타루이 토오키치(樽井藤吉)의 저술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1885),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의 『동양의 이상』(1902) 등에서 기원한다.²⁾ 이러한 아시아주의의 상상적 지리 관념은 특히 제국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1941년 이후 보다 명확하게 확립된다. 즉, 미국,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중심의 ‘세계 구질서’에 대한 재편 요구로서 ‘대동아’ 이념이 주창되면서 대동아공영권 사상이 보다 명징하게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지리 관념을 ‘대동아전쟁’ 시기의 문학작품에서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다음 시를 보자.

1) 아시아주의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사용된다. ‘대아시아주의’, ‘범아시아주의’, 또는 ‘동양’, ‘동방’, ‘동아’라는 다양한 표현이 함께 사용된다. 범아시아주의라는 용어는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라는 용어와 같은 지역주의,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다. ‘Pan-ism’이라는 표현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사용되던 세계적인 유행어였다.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석·백지운 역,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 232면)

2) 다케우치 요시미, 위의 책, 246-269면.

3) 교야스 노부쿠니, 이승연 역,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2005, 89-93면.

아세아의 세기적인 여명은 왔다
 영미의 독아에서
 일본군은 마침내 신가파(新嘉坡)를 뺏아내고야 말았다

동양 침략의 근거지
 온갖 죄악이 음모되는 불야의 성
 싱가포르 불의 세례를 받는
 이 장엄한 최후의 저녁

(중략)

얼마나 기다렸던 아침이나
 동아민족은 다 같이 고대했던 날이나
 오랜 압제 우리들의 쓰라린 추억이 다시 새롭다⁴⁾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에 씌어진 노천명의 시 「싱가폴 함락」(1942)에서
 는 일본군의 싱가포르 점령 사건을 전(全)아시아인의 기쁨인 것처럼 과장
 되게 묘사하고 있다. 영미(英美)로 대표되는 서양을 동양에 대한 압제자,
 침략자로, 동양을 대표하는 일본을 억눌린 동양의 해방자로 표상하는 담
 론구성방식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아주 관습적인 것이었지만 주목
 을 요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유난히 여러 번 반복되는 ‘아세아’, ‘동양’,
 ‘동아민족’이라는 어휘는 서양(英美)을 ‘동양 침략’의 원수로서 타자화
 하기 위해 발명한 상상적 동일자(우리)의 이미지인 것이다. 이 동아, 혹
 은 대동아라는 상상적 우리의 이미지가 패권주의적 제국 일본과 그 식민
 지, 점령지들을 동양이라는 동일자로 표상하기 위해 조작된 허구적 심상
 지리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시에서 ‘동양인(아시아인)’이란 “얼

4) 노천명, 「싱가폴 함락」, 『매일신보』, 1942.2.19. (김규동·김병걸 편, 《친일문학
 작품선집2》, 실천문화사, 1986, 244면)

굴이 검은 친구여! 머리에 터번을 두른 형제여! 잔을 들자! 우리 방언을
 모르는 채! 통하는 마음- 굳게 뭉쳐지는 마음과 마음// 종려나무 그늘 아
 래 햇불을 질러라! 낙타 등에 바리바리 술을 실어 오라! 우리 이 날을 유
 쾌히 기념하자.”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부색, 종교, 인종, 민족,
 지역을 초월하는 범아시아적 심상지리의 개념인 것이다. 제국 일본이 대
 동아라는 이름으로 묶어내고 싶어 했던 상상의 지리는 일본 열도를 포함
 하여 조선, 대만, 중국, 만주국 등 동아시아(East Asia) 지역뿐만 아니라 몽
 고, 티벳 등 내아시아(Inner Asia), 인도차이나(Southeast Asia), 남양 군도(South
 Pacific), 인도(South Asia)를 포괄하는 범아시아(Pan-Asia)의 광활한 지리 개념
 이다. 이 대동아라는 환상은 근대 이전에는 개념조차 없던 근대적 심상
 지리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⁵⁾

대동아라는 범아시아주의 사상의 기원은 메이지 일본에서 발명된 것
 이다. 뜻밖에도 그것은 미술사의 영역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도쿄미술학교
 교장이기도 했던 미술사상가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은 『동양의 이상』
 (1902)이라는 영문 저술에서 아시아는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중국문
 명과 인도문명으로 나누어지지만 이는 편의상의 구분일 뿐 아시아 문명
 은 하나라고 주장하며 동양문화(미술)의 동일성(eness)을 강조하였다. 그
 는 더 나아가 이러한 동양문화가 대륙에서는 그 자취가 많이 사라졌지만
 일본으로 흘러들어와 저장고처럼 쌓여서 일본이 동양문명의 박물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 이로써 그는 동양문화의 동일성을 강조

5)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지리개념으로서 ‘중화(中華)’라는 권역이 있
 기는 하다. 그것은 중국 천자(天子)의 덕(德)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유교적 덕치관념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분히 중국 중심의
 나르시스적인 천하관이라 할 수 있다. (모테기 도시오, 국민국가 건설과 내국
 식민지 - 중국 변강의 ‘해방’, 임지현·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
 먼리스트, 2004, 142면)

6) 가라타니 고진, 「미술관으로서의 역사」,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편, 왕숙
 현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310-318면.

할 뿐 아니라 동양문화의 저장고, 수호자, 계승자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자연스레 범아시아 문명의 대표 국가로서의 일본상을 창안하였던 것이다. 이 메이지 36년에 창안된 “아세아(亞細亞)는 하나다.”라는 오카쿠라의 사상이 중일전쟁 이후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적 근거로 포획되었던 것이다.)

오카쿠라 덴신의 범아시아주의는 1878년의 파리 만국박람회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일본문화에 대한 서양인의 열광 현상, 즉 자포니즘(Japonisme)과 연관된다. 자포니즘으로 인해 일본문화는 비로소 서양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 일본은 이 자포니즘을 통해 자국의 전통미술품(회화, 공예품)을 유럽에 상품으로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문화전통을 가진 문명국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오카쿠라 덴신은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하였기에 도쿄미술학교의 교과과정을 ‘동양미술’ 중심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수 있으면서 서양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상품적 가치로서의 일본적인 것, 아시아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자포니즘은 서양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창안해낸 것이고, 그것을 일본이 역수입한 것이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자포니즘은 서양인이 이국취미의 태도로 동양을 전유하고, 그 대상을 여성화, 심미화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성격을 가진다.⁸⁾ 자포니즘을 일본이 역수입하였다는 것은 결국 서양발(發) 오리엔탈리즘을 일본인이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이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전통/근대, 야만/문명, 정신/물질, 전체/개인,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도식을 기반으로 한 동양/서양의 인식론적 배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서양을 역으로 근대, 문명, 물질, 남성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이미지

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옥시덴탈리즘의 논리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이것은 자연스럽게 동양 자신의 정체성을 도의(道義), 전통, 정신, 여성으로 재구축하는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의 역조명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논리체계는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반근대, 반서구 극복 담론의 일환으로서 ‘동양담론’(근대 초극론)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등장하여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시기까지 제국 일본의 담론체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양담론, 근대 초극론이라는 미명하에 반(反)서양 전쟁 시기를 풍미했던 동양(일본)의 반서양주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극작가에게 내면화되고 있으며, 또 그것이 당시 연극 극장에서는 어떻게 극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는 것이 이 글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2. 반서양주의의 극적 상상력

태평양전쟁 시기 극장에서 상연되거나 지면에 발표된 희곡들 가운데 반서양주의의 경향이 나타나는 작품들은 넓게 보자면 그 수가 적지 않다. 특히 이 시기가 미국, 영국과의 전쟁을 치르던 때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적성국가인 ‘미영귀축(美英鬼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이끌어내는 데 전시체제 예술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시 예술정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문화부장 야나베 에자부로(矢鍋永三郎)는 일본과 미국, 영국 사이에 치러지는 전쟁을 ‘문화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전시(戰時)예술은 문화전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7) 趙演鉉, 『亞細亞復興論 序說』, 『東洋之光』, 1942.6.

8)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299-305면.

9) 임지현 · 사카이 나오키,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2003, 238-240면.

첫째는 文化戰 意識의 파악이다. 전쟁은 군함과 비행기에 의해 화약을 가지고 수행된다. 美英國 태평양 함대의 근간 부대는 대부분 우리 해공군의 기습작전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탄환으로 적의 火門을 마비시켜 버린 지금, 전쟁의 의의는 여러 관점에서 천명, 파악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한 가지는 인간적, 정신적 방면에서의 이해이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문화의 전쟁이라는 성격이 내포되었음을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는 세계관과 美英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계관은 상극을 이루고 있다. 세계는 이번 開戰으로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되었다.

하나는 국가주의적, 국수주의적,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신질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 타파의 주축 진영인 日, 獨, 伊 등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주의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이상의 주축국과 대응하고 있는 美英 등의 현상 유지 노선의 국가들이다. (중략) 그 영향을 받은 우리 日本에도 지금까지 그 餘香이 남아 있어, 美英 승배의 경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半島(朝鮮)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美國系 기독교가 전파되어 美國에 대한 승배가 뿌리 깊으며, 美英文化에 대한 호응이 그 얼마나 강하나 한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저 滿洲事變 이래로 그 迷夢이 점차 타파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미영문화 승배를 먼저 타파하고, 東亞共榮圈 건설을 주제로 한 日本의 思想에 입각해서 일본문화의 宣揚에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강조, 인용자)

야나베 에자부로는 태평양전쟁을 “세계 신질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 타파의 주축 진영”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현상 유지 노선의 미국, 영국에 대항하는 문화전쟁으로 규정한다. 즉, 태평양전쟁은 일본, 독

10) 矢鍋永三郎, 『戰時文化方策』, 『朝光』, 1942.1. 76면. [일본어로 된 원문은 서연호의 『식민지시대의 친일극 연구』(태학사, 1997)에 번역하여 수록되어 있다. 이 인용문은 서연호의 번역문을 게재하였다.]

일, 이탈리아의 국가주의적, 국수주의적, 전체주의적 문화가 미국, 영국의 세계주의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문화에 대해 대립, 투쟁하는 문화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전을 수행하는 전시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임무는 미영 승배의 문화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타파 대상인 미영 문화의 핵심은 세계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단정되었다.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구질서)을 제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양 세력(신질서)과 선명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 반서양주의적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상이 태평양전쟁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서양의 적을 ‘세계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문화로 단정하였으므로, 동양의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가주의, 국수주의, 전체주의’ 문화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이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동양이라는 타자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거울¹¹⁾이었다고 한다면, 옥시덴탈리즘 또한 서양에 대한 동양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한 또 다른 반사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양에게 있어 동양이란 서양의 우월한 정체성을 보증받기 위해 허구적으로 창안된 상상적 지리(imaginative geography)에 불과한 존재이다. 그러나 서양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양도 서양에 뒤지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왜곡되고 조작된 서양의 이미지를 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 동양(비서양 세계)에 대한 세계 지배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양의 옥시덴탈리즘은 국내 정치 전략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동양 사회에서 종종 내부 결속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변, official) 옥시덴탈리즘이 활용되곤 하였다.¹²⁾ 태평양전쟁 시기에 제국 일본이 동양을 위

11)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80면.
12) 서양의 타자를 국가, 또는 사회의 ‘위협’으로 규정하여 비판하는 것을 관변 옥시덴탈리즘(official Occidentalism)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양의 타자를

협하는 적으로서 발명한 서양의 이미지는 관변 옥시덴탈리즘의 성격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관변 옥시덴탈리즘이 동양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은 한마디로 서양의 세계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곡되고 조작된 서양 이미지는 과연 식민지 조선의 연극 극장에서 어떻게 연극적으로 재현되고 있었을까. 이는 미세한 현상부터 괄목할 만한 현상까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가령, 함세덕의 <황해>(극단 현대극장 : 1943, 유치진 연출)와 같은 경우를 보면 전반적 내용은 어린 선원 천명이 일본 해군지원병에 입대하게 되는 황민화외식의 성장과정을 다루는 것이지만, 미국이 황해에 세균을 오염시켜 수산자원을 훼손케 하는 서사가 삽화의 형태로 잠깐 등장하는데, 이러한 예가 미세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더 미미한 사례도 있다. 계모와 전처소생 자식 사이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그린 함세덕의 <심원의 삽화>(『문장』, 1941.2)에서 남의 집 벚꽃나무 가지를 꺾은 아이의 행위를 고자질하는 인물을 ‘서양인집 쿡크’로 설정함으로써 ‘고자질하는 서양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그 편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그 괄목할 만한 극적 재현 양상이 나타난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대표적인 작품들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함세덕의 <추장 이사베라>(『국민문학』, 1942, 3), 임선규의 <빙화>(극단 고희 : 1942, 1943, 전창근 연출), 이원경의 <海賊 フリイヘイジ>(『국민문학』, 1943.5-6), 박영호의 <좁은 문>(『조광』, 1943.12-1944.1, 극단 전진좌 : 1943, 1944, 이서향 연출), 임선규의 <새벽길>(극단 조선연극사 : 1945, 나웅 연출), 조천석¹⁴⁾

저항 구조(counter structure)로 활용하여 ‘해방’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전복의 기능을 갖는 반관변 옥시덴탈리즘(anti-official Occidentalism)이 존재할 수 있다. (Chen, Xiaomei, Occidentalism as Counterdiscourse : “He Shang” in Post-Mao China, *Critical Inquiry*, Vol.18, No.4, Summer, 1992. p. 710.)

13) 이상우, 「현대극장 시절의 함세덕과 <황해>」, 『근대극의 풍경』, 연극과인간, 2004 참조.

의 <개화촌>(극단 황금좌 : 1945, 안중화 연출) 등이 있다.¹⁵⁾ 이 중에서 이 글은 당시 극장에서 실제로 공연된 작품을 중심으로 <빙화>¹⁶⁾, <새벽길>¹⁷⁾, <개화촌>¹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서양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 시대에 서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체로 기독교, 자유주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다. 여기에 공산주의(<빙화>)가 추가되기도 한다. <좁은 문>, <새벽길>, <개화촌>은 미국의 기독교 선교 활동이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여기서 기독교는 서양(특히 미국)을 연상시키는 지배적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주로 학교(교육=미국 유학), 병원(진료)과 연관되어 동양에 대한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탈기관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모습은 <개화촌>에 특히 잘 나타난다.

<개화촌>의 갈등구조는 한약국 집 아들이자 공립학교 학생인 재욱과 교회 장로의 아들이자 미션계 전문학교 학생인 현익을 축으로 진행된다. 일찍부터 기독교와 더불어 근대문명이 전파되어 개화촌이라 불리게 된 한 시골마을이 극중 장소이다. 여기서 약 20년의 연대기적 시간에 걸친 사건진행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갈등구조는 재욱과 현익으로 표상되는 일본(동양)주의 대 미국(서양)주의의 가치관 대립이다. 여기에 여학생

14) 조천석(朝天石)은 박로아(朴露兒)의 필명이다.

15) 조천석의 <무장선 서면호>(극단 현대극장 : 1944, 유치진 연출)도 여기에 속할 만한 작품이나 아쉽게도 현재 대본이 전하지 않는다.

16) <빙화>는 제1회 국민연극경연대회 참가작으로서 극단 고희가 전창근 연출, 김정환 장치의 진용을 갖추고 부민관에서 공연하였다. 제1회 국민연극경연대회는 성군, 아랑, 현대극장, 고희, 청춘좌 등 5개 극단이 참여하여 1942년 9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연을 벌였고, 고희의 <빙화>는 단체상을 받았다.

17) <새벽길>은 조선연극사 창립공연으로 1945년 2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제일극장에서 상연되었다. 나웅이 연출을, 원우전이 장치를 맡았다. (『매일신보』, 1945.2.9)

18) <개화촌>은 극단 황금좌가 안중화 연출로 1945년 2월 20일에 중앙극장에서 상연하였으며, 제3회 국민연극경연대회 참가작 중의 하나였다. (『매일신보』, 1945.2.18)

애라를 둘러싼 재욱과 현익의 애정대결 양상이 이중적으로 얽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익을 미국 숭배(서양주의)에 물들게 한 것, 그리고 재욱의 약혼자였던 애라가 파혼을 무릅쓰고서도 현익에게 끌리도록 만든 원인은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정적 장면은 유학생회가 헨더슨 목사의 내한 10주년을 기념하여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데 대해 같은 회원인 재욱이 불만을 표출하는 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현익 : 목사님은 우리 고을에 큰 공적을 남긴 사람이요. 공로자를 위해서 그만한 성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아오.

유학생들 중에서 몇 사람 “옳소”하고 주먹을 든다.

재욱 : 그 공적이란 뭐요?

병철 : (내달으며) 여보 그걸 모르겠소? 놈 미련하게 생겼다.

현익 : (그를 밀어내며) 자넨 가만있어... 공적? 많지... **학교**를 세운다. **병원을** 설립한다... **교회당**을 짓는다...

재욱 : (말을 가로막고) 그건 당신 같은 야소교인들이나 할 소리요. 그런 설비는 야소교 전도기관에 불과한 것이요. 야소교인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기관을 언제 한번이나 뚝뚝이 개방한 일이 있었소? 주일학교에서는 침 신자 아닌 사람의 자제도 받아주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학대와 모욕에 견디지 못해 자연 댕기지 못하게 되는 거요. 바로 내가 그랬소. 병원에서 신자를 먼저 봐주고 신자에게만 약값을 할인해주지 않소?

현익 : 그야 하루바삐 교를 믿어 착한 사람이 되고 영미국 문명을 배우라는 호의에서 나온 수단이겠지.

재욱 : 영미국 문명? 영어나 지절대고 예쁜 여학생이나 달고 댕기는 게 문명인가? 젊은 여자들이 예배당에서 연설이나 하고 남녀평등이니 여자해방이니 산아제한이니 하고 떠드는 게 영미국 문명이요? 그런 건 문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인에게서 유해 무익한 영미풍습만을 본받은 것이요.**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가

당장 우리 개화촌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치하고 거만하고 풍기가 문란해지고 부자형제간 정리까지 없어지고...** 우선 당신들부터 그렇지 않고 뭐요?¹⁹⁾ (강조, 인용자)

유학생회의 연극연습 장면은 서양숭배의 진풍경으로 묘사된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공연을 준비하면서 학생들끼리 영어로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은 ‘동양인’의 의식으로 무장된 재욱의 눈에는 서양 자유주의의 퇴폐상으로 비쳐질 뿐이다. 기독교 비판은 자연스레 서양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서양 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에 문혀 ‘남녀평등’, ‘여자해방’, ‘산아제한’과 같은 합리적 주장마저 “유해무익한 영미풍습”으로 매도당하고 만다. 서양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화촌은 “사치하고 거만하고 풍기가 문란해지고 부자형제간 정리까지 없어”진 마을, 즉 도의와 절제, 미풍양속이 무너진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사 속에는 서양=사치, 거만, 풍기 문란/동양=도의, 절제, 미풍양속이라는 인종주의적, 심상지리적 도식이 도사리고 있다. 당시 이러한 인종주의적, 심상지리적 논리는 매우 일반적이었다. 김동원(金東元)은 『亞細亞의 曉鐘, 一億一心確固團結』(1942)이라는 글에서, 기독교 선교와 육영자선사업 덕분에 많은 조선인들이 미국인은 훌륭한 인류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겪어보면 미국인은 “불친절, 비인격, 방종”, “남비(濫費)와 나태(懶怠)”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²⁰⁾ 동양인은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절도가 있으며, 서양인은 그 반대의 성질을 갖는다는 인종주의적 편견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심상지리적 인식론 내면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 재욱은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와 중학교 교장이 되고, 현익은 미국에서 철학박사를 받고 돌아와 미션계 전문학교 교수가 된다. 그런데

19) 조천석, <개화촌>, 이재명 편, 《해방 전 공연회곡집5》, 평민사, 2004, 340-341면.

20) 김동원, 『亞細亞의 曉鐘, 一億一心確固團結』, 『大東亞』, 1942.3. 84면.

그는 처 애라를 버리고 메리라는 미국여자와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서양 식 저택에서 파티를 벌이며 사치스런 생활을 하면서도 곤궁에 처한 부모와 분처 애라, 친이들 준석을 외면한다. 이에 참다못한 재욱은 현익에게 “여보시오. 손박사! 당신이 미국 가서 가져온 타락된 자유주의의 선물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우선 당신 가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오!”라고 질책한다.

당시의 문학예술계에서 서양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문화의 청산 문제는 매우 중대한 작가적 과제가 되었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문학잡지 『국민문학』의 편집요강 제①항의 내용은 “국체개념의 명칭 : 국체에 반하는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적 경향을 배격하는 것은 물론, 국체관념을 명징하지 않게 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경향을 절대 배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일본의 국체(國體)를 명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조가 위협이 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최재서의 국민문학의 입장이라는 글을 보자.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우선 첫째, 그것이 **개성**의 도야,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 둘째, 개인의 **자유**라는 늘 **매력적**인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전일체로서의 **국가 해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물사관과 같이 바로 인간을 혁명적 비상수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과 나태와 퇴폐**에 의해 점차로 붕괴시킨다는 세 가지 점에 있습니다.²¹⁾ (강조, 인용자)

최재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 대한 무관심과 이

21) 최재서, 「국민문학의 입장」(1942), 노상래 역, 『전환기의 조선문학』(1943), 영남대출판부, 2006, 104면.

기심과 나태와 퇴폐”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국가 [국체(國體)]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분히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문학평론가 최재서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연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연극의 이론가 함대훈은 “**국민연극은 건전한 국민정신 또는 국민도덕이 정당화하게 된 연극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연극이든 모랄이라는 것이 있으나 금일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도덕이란 것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를 지양한 전체주의의 국민도덕**”(강조, 인용자)이라고 주장한다.²²⁾ 즉, 국민연극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를 지양한 전체주의의 도덕에 토대를 둔 연극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편 <새벽길>에서도 미국 유학이라는 서양숭배의 환상은 비극적 참상을 불러일으키는 모티브로 작용한다. <새벽길>에서 주요 극적 갈등은 송진사 일가와 미국 광산업자 모리슨 사이에서 발생한다. 금광을 찾는 미국인 모리슨은 금맥을 깔고 앉은 송진사의 선산을 탐내지만 송진사는 선영을 팔 수 없다고 버틴다. 이에 모리슨은 교육과 근대의학의 힘으로 송진사에게 접근하여 금광 채굴권을 얻어낸다. 서울에서 의사 아놀트를 불러내서 위암을 앓고 있는 송진사를 치료해주고, 송진사의 아들 영철의 미국 유학을 주선해주면서 신임을 얻어낸 것. 모리슨은 기독교와 근대교육과 의학의 힘을 내세워 금광에서 막대한 이득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철을 미국으로 보내고 그 애인 박마리아까지 아내로 취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 교육, 의학이라는 서양(미국) 문명의 표상은 철저하게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송진사의 위암 치료방법이란 진통제(모르핀) 주사를 놓아준 것에 불과하였고, 영철의 미국 유학도 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20년 뒤 미국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영철의 앞에는 모리슨에게 짓밟히

22) 함대훈, 「국민연극의 현단계」, 『조광』, 1941.5, 78면.

고 버림받은 마리아와 그 혼혈자식 헨리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참담한 결과의 원인은 물론 모리슨의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국 유학을 갈망한 영철의 서양송배의식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 끝까지 선산을 지키려했던 송진사도 결국 영철의 설득에 결심이 흔들리고 말기 때문이다.

서 : 미국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왕자가 될 이 아니냐. 그 불같이 일어나는 과학 각종 학문을 보아라.

영진 : 그렇다. 우리가 마땅히 땀을 흘리고 배울 것은 미영국의 학문이다. 모리슨 씨의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영철 : 오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많이 배워가지고 와야만 한다. 식욕이 왕성한 소와 □이 무엇이나 주는 대로 모두 뱃속에다 집어넣고 와야 한다.

서 : 아, 오년 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그 캄캄한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영진 : 사랑과 자유의 나라, 나이아가라의 거대한 폭포가 있는 나라, 캘리포니아의 우스름 달밤.

서 : 이백층 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계 제일의 화려한 도시 뉴욕의 기관, 네온과 네온이 춤추고 돌아가는 환락의 불야성.

영철 : 세계 제일의 문명국 미국의 대학생활, 원래의 객을 반기는 미국 젊은 동무들의 뜨거운 악수 악수, 하하하.²³⁾

함께 미국 유학을 가기로 한 영철과 동료들은 미국의 신학문과 발전된 문명, 그리고 환락과 낭만의 자유주의적 분위기에 한껏 매료되어 있다. 이러한 서양송배가 자신의 운명에 과멸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품의 후반부에서 극명하게 제시한다. 이 유학생들은 모리슨에게 속아 노예

선을 타게 되고 20년 후 영철만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온다. 미국에 처자식이 있는 모리슨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혼혈아를 낳게 되는 박마리아에게도 자기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미션계 병원의 간호사였던 그녀의 서양송배의식이 결국 자신의 불행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개화촌>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현익의 서구식 호화생활과 물질적 사치, 그리고 <새벽길>에서 광산업자 모리슨의 집요하고 탐욕스런 이윤추구는 서양의 물질만능주의와 자유주의적 속성을 대변한다. 이는 역으로 동양은 물질보다는 정신, 개인보다는 전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표상됨을 의미한다. <새벽길>에서 송진사는 모리슨에게 황금보다는 조상의 선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절제, 근검, 절약, 충성, 효도, 우애 등을 동양의 가치로 주장함으로써 서양에 대한 동양의 정신적 우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절제, 근검, 절약 등의 가치가 반물질주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충성, 효도, 우애 등의 가치는 반자유주의, 반개인주의적인 것이다. 후자가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상과 연결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전자 역시 개인의 삶이 국가에 의해 관리, 통제되는 ‘생활’(lifestyle)개선운동의 일환이기에 국가주의적인 것이다. 일본은 제1차 대전 이후 ‘문화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일상생활 개선운동, 심플 라이프(simple life) 운동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일상생활을 합리화와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관리,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에 의해 국가는 개인이 상품문화의 소비와 낭비, 사치에 현혹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유도했던 것이다.²⁴⁾ 이러한 일본의 국가 주도 생활문화 관리체계가 대동아공영권 시기에 와서 한층 더 심화되었다. 1941년 일본 상공부는 ‘국민생활용품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고도국방국가는 국민들에게 기초생활환경의 영역인 의식주를 표준화하고 합리

23) 임선규, <새벽길>, 이재명 편, 《해방 전 공연회곡집3》, 평민사, 2004, 204-205면.

24) 하르투니언, 해리, 윤영실·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236-237면.

화하길 요구한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²⁵⁾ 국민의 일상생활이 근검, 절약, 절제의 방식으로 합리화, 표준화되도록 국가가 개인의 일상을 압박했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는 이러한 일본인의 생활방식을 서양에 대해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동양주의적 가치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개화촌>에서 현익의 아들 준석은 사치와 방종의 생활에 빠져 있는 미국승배주의자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준석 : (홍분해서) 아버지! 정말 눈을 뜨십시오. 오늘날 아버지 일신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뭘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금과옥조로 생각하시고 계시던 **아메리카의 물질문명과 타락된 자유주의사상**이 아니고 뭘니까. 우리나라에는 수 천 년래로 내려오는 **장하고도 아름다운 보은사상과 충효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으로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방 우리 일본은 전 동아를 대신하여 동양의 침략자인 영미와 싸우고 있습니다.²⁶⁾ (강조, 인용자)

준석은 동양의 정신문화, 도의(道義), 공동체의식이라는 준거를 통해 미국의 물질주의문명과 자유주의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동양은 정신, 전통, 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물질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동양의 압제자’ 서양에 비해 우월한 정체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반근대, 반서양주의의 동양론이 그 인식론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반근대, 반서구담론으로서의 동양론이란 근대, 서구로 표상되는 서양이라는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 동양의 특수한 정체성을 주창하는 담

25) Kashiwagi Hiroshi, On Rationalization and the National Lifestyle, *Being Modern in Japa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72.

26) 조천석, 앞의 책, 365면.

론이기 때문에 타자로서의 서양에 대한 자의적 왜곡과 조작이 없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제국 일본의 근대 초극 담론으로서 동양론은 근대 서양의 이미지를 물질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로 왜곡, 규정하여 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그것은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이 익숙한 동양에 대해 경멸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신기한 동양에 대해서는 환희와 공포를 느끼는 양가적 태도를 갖는 것처럼²⁷⁾, 동양론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여준다.

위 작품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양의 우월한 미풍양속, 절제, 근검, 절약, 도의, 정신성, 공동체의식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여기는 서양의 비윤리성, 비정신성, 비인격, 방종에 대해서는 경멸적 태도를 보이지만, 서양(미국)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진보한 기계문명에 대해서는 경탄과 공포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1942년 9-10월 『文學界』 지상에 실린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서 ‘아메리카니즘’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양가적 태도가 잘 나타난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모던 보이, 모던 걸을 통해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경박한 아메리카니즘에 대해서는 경멸적 태도를 보이지만, 물질문명과 기계문명, 청교도정신, 아메리칸 데모크라시 등에 대해서는 경탄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²⁸⁾ 이런 점에서 반서양주의 담론은 속성상 오리엔탈리즘과 쌍생아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서양주의 담론은 제국 일본의 독창적 산물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역설적이게도 반서양주의 담론 역시 서양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최근의 견해이다.²⁹⁾ 흔히 서양(the West)이라고 하면 유럽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은 서유럽

27) 사이드, 에드워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106면.

28) 河上徹太郎 外, 『近代の超克』(東京 : 創元社), 1943. pp. 284-288.

29) 바루마, 이언 · 마켈릿, 아비샤이, 송충기 역, 『옥시덴탈리즘 : 반서양주의의 기원을 찾아서』, 민음사, 2007 참조.

(서구) 지역과 미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과 동유럽, 러시아 등은 여러 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심의 서유럽과 차이가 있어서 서양이라는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성적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 프랑스혁명과 자유 민주주의의 대두, 산업혁명과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 자본주의의 발달, 해외 식민지의 개척 등을 특징으로 한 ‘문명(civilization)’, ‘근대(modernity)’, ‘발전(development)’이라는 서양의 신화는 서유럽과 미국 등 몇몇 소수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전 유럽에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듯 서유럽과 미국에 국한되는 서양의 신화에 대한 반발로서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에서 대두한 것이 반서양주의(옥시덴탈리즘)라는 것이다. 그 진원지는 주로 독일과 러시아다. 이들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낭만주의 사상이 발달하여 서유럽의 이성적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사상적으로 대립되고, 서구의 기계문명과 자본주의적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파시즘이 발달하였다. 특히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국민국가로는 미국, 영국이 이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탐욕스럽고 퇴폐적이고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여 순수한 신앙의 세계에서 멀어져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⁰⁾

독일의 파시즘은 특히 이 반서양주의적 사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파시즘은 반도시주의, 반국제주의, 반유대주의, 반자본주의,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계몽주의, 반맑스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그것은 자연, 전쟁, 영웅, 민족, 전통, 종교적, 인종적 순수성을 지향한다.³¹⁾ 이교도, 이민족, 다인종의 잡거와 혼재, 공존 그리고 극단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자본주의와 물질적 기계문명, 재즈 음악으로

30) 바루마, 이언·마겔릿, 아비샤이, 위의 책, 23면.

31) 네오클레우스, 마크, 정준영 역, 『파시즘』, 이후, 2002 참조.

표상되는 퇴폐적 도시문화에 탐닉하는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서구의 메트로폴리스는 독일 파시스트들의 눈에는 인종, 종족, 자연, 전통, 종교의 절대적 순수성(purity)이 파괴되고 훼손된 오염 공간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특히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 유럽의 여러 지역에 산포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금융업,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디아스포라로서의 유대인이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유대인은 인종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종족적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순수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극단적 이윤을 추구하는 고리대금업,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독일 파시즘의 증오 대상이 되었다.³²⁾ 흥미로운 점은 조천석의 <개화촌>에 녹아든 반유대주의의 정서이다.

재욱 : (결심을 하고) 아버지, 고리대금을 그만 두십시오.

선달 : (意外에 놀라) 뭐!?

재욱 : 그리고 내년에 절 전문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동경 가서 고학을 할테니 학비는 그만두시고 이번 떠날 때 아주 여비로 이백 원만 가져가겠습니다.

선달 : 내가 고리대금한다고 누가 널더러 욕을 하드냐.

재욱 : (무엇인지 혼자 분개하고 있다.)

윤생원 : 바루 장로님 아들이 **고리대금하는 유대인의 자식**이라고 욕을 해서, 일전에 대판 싸웠답니다. 그 녀석 목덜미 물어뜯어서 째은 학생이 이겼습죠. 허허 .³³⁾ (강조, 인용자)

미국송배에 홀린 약혼녀에게 절교를 당한 재욱은 일본 유학에 앞서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을 그만 두도록 설득한다. 그리고 아버지 몰래 고리대

32) 반유대주의와 파시즘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아렌트, 한나,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1』, 한길사, 2006 참조.

33) 조천석, 앞의 책, 322면.

를 빌려 쓴 이들에게 모두 이자를 탕감해준다. 이로써 재육의 행동은 유태인=고리대금업=비윤리, 비인격/일본=절제, 근검, 절약=도의, 미풍양속의 도식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육의 행동은 독일 파시즘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데, 맥락이 다른 식민지 조선에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연극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중, 동부유럽에서 기원한 반유대주의, 반서양주의 사상은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러시아 스탈린주의) 사상으로 연결되었고, 또 그것은 제국 일본의 파시즘에까지 파급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반서양주의적 옥시덴탈리즘은 서양에서 기원한 파시즘의 일본적 전유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 해군 함대에 전투기를 몰고 자살공격을 감행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는 반서양주의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영국의 군인과 시설물에 대한 아랍 테러리스트의 자살폭탄공격과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미국, 서유럽에 대한 반서양적 증오심과 적대감의 표현이다. 이러한 증오심,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담론기제가 바로 옥시덴탈리즘이었고, 그것은 1930-40년대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즘이 공유하고 확대재생산하였던 것이다.

3. 인종과 여성, ‘슬픈 동양’의 이미지

‘대동아신질서’를 내세우던 당시의 제국 일본은 외관상 종족적, 민족적 순수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조선이나 대만, 만주국 등 식민지에서 일본 당국은 식민지인에 대한 회유와 동원의 수단으로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구해야만 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초민족적(transnational) 제국 일본의 이미지를 내세웠다. 조선 총독부가 나치의 인종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이 대표적 사례

가 될 것이다.³⁴⁾ 대동아공영권의 지도 민족인 일본으로서는 이른바 ‘혼합 민족론’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혼합민족론이란 일본 민족이 본래 일본 열도에서 거주한 야마토 민족뿐만 아니라 대륙과 한반도에서 도래한 북방민족,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남양 지역에서 도래한 남방민족 등과 혈통적으로 융합되어 오늘의 일본 민족이 되었다는 종족이론이다. 이러한 혼합민족론은 대동아공영권의 사상과 매우 부합하는 종족이론이었던 것이다. 이는 ‘제국으로서의 일본’을 구성하는 정치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의 종족이론은 크게 혼합민족론과 순혈민족론이라는 두 갈래로 대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순혈민족론은 일본 민족이 야마토 민족의 순수혈통에 의해 단일하게 이어왔다는 종족이론인데, 아시아의 다민족, 다종족으로 구성된 ‘대동아’ 블록 시대에도 여전히 후생성과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야마토 민족 순수혈통론이 강력하고 끈질기게 주장되었다. 총독부가 내선일체, 동조동근론을 주장하며 내선결혼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순혈민족론자들은 조선인과의 혼혈은 범질(凡質)의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므로 가급적 혼혈을 피해 “일본 인종을 순수하게 증식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구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대동아 블록의 시대에도 ‘민족으로서의 일본’이라는 관념은 보수적 우파 민족주의자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제국 일본 내에서 종족담론과 동양담론이 서로 착종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즉, 인종지도(the map of racial hierarchy)와 심상지리(imaginative geography)가 서로 부딪치는 형국이었다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심상지리의 측면에서는 동양이 서양에 비해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이라는 인종지도의 측면에서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양론이라는 정치적 담론에 의거하면 동양 민족 대 서양 민족의 이항대립만 존재해야 했지만, 실

34) 오구마 에이지,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315면.

35) 위의 책, 346-348면.

제로는 우생학 담론에 의한 우월한 인종(종족) 대 열등한 인종(종족)이라는 우생학적 위계가 무시될 수 없었던 것이다. 동양론이 서양에 대한 우월한 동양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심상지리의 인식론적 배치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생학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우월한 아마토 민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인종지리의 인식론적 배치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동양론이 심상지리라고 한다면, 우생학 또한 과학을 빙자한 상상적 인종지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종지도에서 일본종족은 조선인, 중국인에 비해 우월하지만 유색인종으로서는 백인종에 비해 열등하다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종지도와 심상지리는 모순적이고 착종적이다.³⁶⁾

그렇다면 194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연극에서 인종, 종족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근본적으로 대동아전쟁 시기 조선의 극작가들은 총독부가 주창한 내선일체론, 동조동근론에 추종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정치적 차원에서 수용하려고 했다. 그것은 작품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동조동근론에 의해 조선인은 일본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양인종(황인종)은 힘을 합쳐 서양인종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 문제는 옥시덴탈리즘을 소재로 한 극작품에 자주 다루어지는데, 특히 <새벽길>이 대표적이다. <새벽길>에서 모리슨과 박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헨리는 자신이 혼혈아라는 사실에 성격이 비뚤어져서 사고몽치로 전락한다. 주위의 인종적 편견이 그를 더욱 더 처참한 궁지로 몰아넣는다.

박 : 허우대가 훌륭하다? 사람의 머리란 게 젊을 땐 검고 늙으면 흰 법인데 아니 저 머리는 희지도 검지도 않고 셋노릇이니, 도대체 몇 살 되면 저렇게 된다는 게요. 방참봉, 응. 허허허. (헨리의 턱밀 바

36) 일본민족의 백인기원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백인기원설만큼 백인종과 서양에 대한 일본의 열등의식을 잘 드러내는 것도 없을 것이다. (위의 책, 235면)

짝 다가서며) 다섯 식구의 목숨 줄을 왜 끊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순옥이를 누굴 못줘서 널 주란 말야. 넌 거울도 못 봐. 네 머리털을 못 봐. 네 눈깔을 못 들여다보느냐 말야.

헨리 : (참다못해 박의 멍살을 움켜쥐고) **새빨간 머리칼이** 어쩐단 말야. **파란 눈깔이** 어떻단 말이야. 그렇다. (박을 밀고) 난 성명이 없다. 박가도 김가도 최가도 아니다. **개만도 못하다. 말 새끼만도 못하다.** 이 새빨간 머리털을 보아라. 꿩이 눈깔 같은 파란 눈깔을 보아라. **난 사람이 아니다. 꿩이다. 원숭이다.** 그러니 어쩐단 말이나. 그러니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머리를 돌에 찍어 죽으란 말이나. 헛바닥을 깨물고 꺼꾸러지란 말이나.³⁷⁾ (강조, 인용자)

빨간 머리칼 색, 파란 눈동자 색과 같이 서양인종의 우월한 신체적 특징이라고 여겨졌던 요소들이 박에 의해 열등한 인자로 부정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헨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자학하고 있는 장면이다. 새빨간 머리칼, 파란 눈동자를 가진 자는 개와 말만도 못하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인격이 부정된다. 헨리는 어려서부터 혼혈아인 자신을 “동물원에 있는 이상한 동물 보듯이 백화점 진열장에 장식한 괴상한 장난감 보듯이”하는 세상을 저주하며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칭한다. 헨리의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은 서양인종(백인종)에 대한 동양인의 인종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일까. 서양인종(백인종)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국 일본의 복잡한 인종적 열등의식을 통해 볼 때 그렇게 단언하기 어렵다. 그것보다는 뒤에 나오는 헨리의 대사 “난 이런 놈이에요. **예의도 없고 풍속도 모르는 놈이에요.**”(강조, 인용자)에 그 핵심이 있다. 헨리의 열등성은 신체적 특성보다는 ‘예의’와 ‘풍속’, 도덕과 미풍양속을 모르는 서양인의 비도덕성, 비인격성, 비정신성이라는 날조되고 오용된(misrepresented) 서양

37) 임선규, <새벽길>, 239-240면.

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다. 고매한 도덕과 정신적 깊이는 동양인의 고유한 것이고 서양인은 뛰어난 신체조건을 가졌지만 정신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헨리의 열등함은 그의 잡종성(hybridity), 즉 비순혈성(non-purity of the blood)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인종적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그가 불행에 처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서양숭배주의 탓이다. 즉, 헨리라는 잡종성, 비순혈성의 비극은 서양숭배주의(=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잉태한 것이라는 논리적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문제는 서양숭배주의가 혈통적 순수성(purity of the blood)을 훼손했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여성의 성적 순수성(sexual purity)의 문제, 즉 순결(virginal purity), 정조관념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철 : (...) 헨리에 그 파란 눈동자 그 높은 코 그 빨간 머리칼은 헨리가 어머니께서 받은 **거룩하고 슬픈 유산**이요 남들이 유산으로 받은 돈보다도 지위보다 명예보다 깨끗하고 높고 거룩한 그러나 슬픈 유산이요. 헨리는 이 거룩한 유산을 크게 살리어야 하오.

헨리 : 살리다니요.

영철 : 그렇소 살리어야 하오. **그 파란 눈동자는 헨리의 어머니가 놈들에게 짓밟혔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요. 헨리에게 조금도 불명예스런 약점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결한 희생에서 얻은 놈들이 보면 처참한 대가가 아니고 뭐요. 헨리는 어머니가 받은 그 원한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요. 그 유산인 원한을 놈들에게 보기 좋게 앙가풀이 해주어야 할 사람이요.³⁸⁾ (강조, 인용자)

혼혈이라는 정체성에 방황하는 헨리에게 영철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이 격려의 말에서, 그는 혼혈성(잡종성)이란 혈통의 순수성을 훼손한 것이면서 동시에 동양인 여성의 성적 순수성이 훼손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논법을 비친다. ‘인종적(종족적) 순수성(racial purity)= 여성의 성적 순결성(sexual purity)’이라는 등가의 공식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인데, 이는 타 인종(서양인종)의 남성성에 대한 야만성과 폭력성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인종적 혐오감을 부추기는 인종주의(racism)적 논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게일 다인스(Gail Dines)는 「킹콩과 백인여성」이라는 논문에서 영화 <킹콩>을 예로 들면서 백인여성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킹콩은 백인 여성의 성을 위협하는 야만적인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는 백인여성의 여성성을 위협하는 흑인 남성성(black masculinity)을 표상한다고 주장한다.³⁹⁾ 다인스의 해석 속에는 영화 <킹콩>이 흑인 남성성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표상작용을 통해 인종주의적 편견을 드러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남성성과 여성성의 인식론적 배치를 통해 인종주의적 편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새벽길>에서는 동양 여성의 성을 위협하는 존재인 백인 남성성(white masculinity)을 미국인으로 설정하여 악마화 하는 담론구성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혼혈자식을 낳은 박마리아가 스스로를 “서양 놈에게 속고 짓밟힌 불쌍한 조선 여인”으로 규정하는 점에 있다. 그녀의 논법 속에는 ‘동양=황인종=여성/서양=백인종=남성’이라는 이항대립구조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혼혈을 “거룩하고 슬픈 유산”이라고 단정하는 영철의 대사와 조응하면서 서양(West)=남성성(masculinity)=폭력성(violence)/동양(East)=여성성(femininity)=희생자(victim)(슬픈 것)이라는 논리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양은 여성적이며 희생자이며 슬픈 것이라는 담론구성방식은 동양

39) Dines, Gail, King Kong and the White Woman : *Hustler Magazine and the Demonization of Black Masculinity, Genre, Race, and Class in Media*, Thousand Oaks : Sage, 2003, pp.451-460.

38) 임선규, 「새벽길」, 259면.

을 여성화, 심미화 한다는 점에서 서양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인 인식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옥시덴탈리즘의 관점에서 씌어진 작품에서도 그러한 인식론적 배치가 여전히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이 점은 곧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란 인식론적인 상동성을 갖는 표리부동의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선규의 또 다른 희곡 <빙화>에는 이러한 점이 한층 더 표나게 나타난다. 맑스주의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던 청년 박영철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일로 말미암아 중학교 교사직을 내던지고 애인 순영과 함께 만주를 거쳐 연해주에 흘러들어온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처참히 깨지고 만다. 그가 자원입대한 소련군 소속 조선인 76연대는 만주국에 침투하여 조선인 개척민들을 노략질하는 마적 떼에 불과하였고, 형제라고 믿었던 소련은 중일전쟁이 터지자 연해주의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킨다. 설상가상으로 비밀경찰에게 체포된 애인 순영은 러시아 경찰 표도르스키에게 능욕당하고 그의 정부가 되고 만다. 순영은 있는 힘을 다해 영철과 조선동포들을 일본 배에 태워 조선으로 보내려 애쓴다. 그러나 자신은 끝내 배에 타지 않고 자살하고 만다.

순영 : 원수의 씨를 나는 가졌구려. 이래서 한 번 헛디딘 여자의 운명은 자꾸만 자꾸만 지옥으로 끌여가기로만 마련이구려...

쏘니아 : 언닌 바보요. 왜 진작.

순영 : 바보야. 그렇지만 어찌하는 수가 없구려. 진작 영철씨라도 만났더라면 용기가 났을지도 몰라? 아니야... **난 조선은 못가.** 영철씨는 날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쏘니아. 날 불쌍하다고 생각허우... 그렇다면 애기 잘 길러주고 영철씨 만나거든 내 고생한 이야기나 잘 해주오. 어서 가오.⁴⁰⁾ (강조, 인용자)

순영이 조선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타 인종(서양인종)에게 정조를 잃고 “원수의 씨”를 가졌기 때문이다. 정조를 잃은 여성, 혈통의 순수성을 훼손한 여성은 고향으로 돌아갈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슬픈 동양의 이미지가 부여된다. 동양 자신에게 나약하고 슬픈 여성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기 주변화(self-orientalizing)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양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형상화방식으로서 모순적이다. 오리엔탈리즘의 담론구성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이는 동양인종의 순수혈통론에 기반을 둔 인식론이기도 하다. 극단적 순혈론은 파시즘의 인종주의, 단일민족 신화와 연관되는 것이다. 사실 인종, 종족, 종교, 사상, 정신 그 무엇에도 절대적 순수란 존재할 수 없다. 절대 순수 존재가 있을 것이란 낭만주의적 이상과 믿음에서 파시즘 사상이 기원하는 것이다. 서양서유럽과 미국의 상업적 자본주의, 대도시의 물질문화,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잡거와 혼성이 서양의 전통, 인종, 종교, 정신의 순수성을 파괴했으며, 그 절대 순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사상이 중동부 유럽의 파시즘을 탄생시켰다. 그 파시즘의 절대 순수 숭배사상의 동양적 버전이 바로 만계일손(萬系一孫)의 국체(國體)라는 국가적 순수성(national purity)에 대한 숭배사상을 낳았으며, 이는 다시 전통, 정신, 도의, 절제, 미풍양속이라는 동양적 가치의 절대 순수에 대한 숭배(동양주의)로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절대 순수 신봉이 여성의 몸이라는 신체지리에까지 이전, 확장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성의 성적 순수성=민족의 혈연적 순수성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잣대로 보면 타인종, 타종족과의 결혼이나 잡종교배는 죄악이 되는 것이고, 타인종, 타종족의 남성성은 자민족의 여성성을 위협하는 야만과 폭력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빙화>에서 러시아인 표도르스키에게 순영이 정조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표도르스키의 백인 남성성은 야만과 폭력의 이미지로 재현되고, 순영의 훼손된 여성성은 슬픈 희

40) 임선규, <빙화>, 이재명 편, 《해방 전 공연희곡집3》, 평민사, 2004, 169면.

생자의 이미지로 표상된다.

<빙화>에서 대동아주의의 환상이 감상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마지막 장면이다. 표도르스키 집에서 순영을 상봉한 영철은 때마침 집으로 들어온 표도르스키가 쓴 총알에 다리를 맞는다. 그때 일본인 무라우에(村上) 선장이 표도르스키에게 달려들어 영철을 돕고 둘은 힘을 합쳐 사투를 벌인 끝에 승리한다.

표도르스키 : (다시 총을 잡는다)

村上 선장 : (다음 방에서 뛰어나온다)

세 사람 어울려 사투가 벌어진다. (순영은 넘어졌다) 군중이 이 집을 향해 돌을 던진다. 돌과 나무와 여러 가지가 창으로 날아 들어온다. 방안에 사투는 1대2로 표, 넘어진 모양이다. 킁킁한 방안은 잠시 고요히 광선 한 가닥이 직선해서 실내 험상하고 비장한 공기가 흐른다.

村上 선장 : “おい”死ぬなあ…。[이봐 죽지 말라구…] (소리가 목에 걸린 것이다)

박영철 : (신음소리 들린다) 선장.

村上 선장 : ここだ…。[여기다…]

두 시커먼 그림자가 광명을 찾아서 밝은 곳으로 움직인다.

두 그림자 부둥켜안는다. 박영철, 선장.

村上 선장 : おい生きてるて呉れたか。[살아있어 주었군]

두 사람 붙들고 일어선다.

박영철 : どうして死なして呉れなかつたんだ。[왜 죽게 내버려두지 않

았나.]

村上 선장 : おれ達は兄弟だそおれはお前をうたがつた然し助してしまつたんだねわかるだろうおれ達には見えないものがつたいるんだが。おい行かう皆つているぞ。お國ちやみんな戦争しているんだぞ。行かうなあわかつたわかつた。おれ達は兄弟だあのかわいさうな同胞にも祖國を待だして上げる。
[우리들은 형제야.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지만, 도와주고 말았어. 알겠지. 우리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 **자 감시다. 본토에서 모두들 전쟁을 하고 있어. 가자고 알겠지. 우리들은 형제야.** 불쌍한 동포에게도 조국을 갖게 하는 거야.]⁴¹⁾ (강조, 인용자)

박영철과 무라우에 선장이 힘을 합쳐 표도르스키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면서 연극적이다. 무대 위에 재현된 동양/서양, 동양인종/서양인종의 연극적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박영철과 무라우에의 협력은 동양인이라는 상상적 동일성, 즉 내선일체의 형제애라는 상상적 인종의식에 근거한 것이다. 상대가 인종적으로 우리와 다른 서양인이라는 점, 더욱이 일본 군국주의와 적대관계에 놓인 맑스주의라는 점에서 반드시 싸워서 박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무라우에는 박영철에게 “그래. 공산주의에 서로 꽤 괴로움을 당했지. 바보 같은 공산주의”라고 외친다. 박영철도 “馬鹿野郎[바보 같은 놈]”이라고 공감의 뜻을 표한다. 동양인이라는 상상적 동일성 속에서 내선협력을 이루어 서양의 ‘악마’ 공산주의를 물리친 것이다. 영철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였다. 그러나 내선(內鮮)의 두 남자는 하루빨리 귀국하여 중일전쟁이라는 더 큰 싸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있다.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한 식민지 여성을 남겨둔 채.

41) 임선규, <빙화>, 176면.

순영이 낮이 없는 사람이다.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다보고 다시 멀리 하늘을 본다.
순영의 얼굴, 광선을 받아 눈물이 빛난다.
배 떠나는 소리.
순영, 기진해서 쓰러진다.
군중의 哀訴 소리. 슬픈 노래 소리.
큰 고동 소리⁴²⁾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는 순영은 죽어가면서 연해주 어느 항구 도시의 밤하늘을 멀리 바라본다. 이국땅에 홀로 남겨진 채 죽어가는 식민지 여성의 슬픈 이미지, 그것은 서양의 남성성에 훼손당한 동양적 여성성의 슬픈 운명인지 모른다. 슬픈 동양 여성 이미지는 왜 반복적으로 재현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유교적 정조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한 식민지의 낙후된 작가의식(또는 관객 수준)일 수도 있고, 당시 국민연극이 지향했던 멜로드라마적 대중성이 빚어낸 관습적 여성인물 구성방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식민지 작가의식이 여성문제에 관한 한 낙후된 의식수준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국민연극 시대에도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국민연극과 멜로드라마와의 관련성일 것이다. 국민극 이론가 함대훈은 국민연극은 소수의 지식층과 다수의 대중계층이 즐기는 피라미드형의 연극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이는 바꿔 말하면 국민연극은 프로파간다 연극의 속성상 대중성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중성이라는 것은 오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것은 멜로드라마의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임선규는 『빙화』에 대한 ‘작극(作劇) 상의 메모’에서 애초 이 작품을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쓰고 싶었지만, 이것이 관객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멜로드라마로 만

42) 임선규, <빙화>, 177면.

43) 함대훈, 『국민연극의 방법론』, 『춘추』, 1941.12.

들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⁴⁴⁾ 관객은 멜로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객 대중의 취향을 위해 사실주의극보다는 멜로드라마의 기법을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다. 비평가 김건 역시 『빙화』의 공연에 대한 관중의 호응이 매우 컸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했다.⁴⁵⁾

그러나 그것뿐일까. 상상적 지리로서의 서양이 잔혹한 폭력성, 야만성, 남성성의 이미지로 조작(표상)되려면, 그 반대쪽에는 그 남성적 폭력성 앞에 스러지는 가녀리고 슬픈 동양 여성의 희생자 이미지가 또한 구성(표상)되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오리엔탈리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옥시덴탈리즘의 표상놀이는 그 자체로 매우 연극적인 것이다.⁴⁶⁾ 1940년대 초반 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의 극장에서는 반서양주의의 표상놀이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4. ‘동양인’, 국민(國民)이 된다는 것 : 결론을 대신하여

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의 극장 무대에서 반서양주의의 표상놀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사상이 제국 일본과 그 식민지에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대동아’, ‘동양’, ‘아시아(아세아)’의 가치를 강조하는 연극이 강요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양’의 가치를 말하는데 왜 서양이 늘 상

44) 임선규, <빙화>, 65면.

45) 그러나 그는 “『빙화』는 작가 자신이 변해(辨解)한 것처럼 멜로드라마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빙화』를 보고 멜로드라마의 개념을 재파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분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멜로드라마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멜로드라마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 의문을 느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건, 『제1회 연극경연대회인상기』, 『조광』, 1942.12. 133면.)

46) 사이드, 에드워드, 앞의 책, 112-113면.

수로 등장해야 하는가. 서양 없이 동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양이라는 특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서양이라는 보편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사란 기본적으로 서양의 역사를 말하며, 동양의 역사는 ‘세계사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⁴⁷⁾ 헤겔이나 마르크스에게도 동양(아시아)은 계몽되지도 발전하지도 않는 사회로 인식되었다. 전제군주 1인만이 유일한 주체로 존재하는 미개한 사회이거나 발전 없는 정체(停滯)된 사회로 인식될 뿐이었다. 문명, 발전, 진보는 오직 서양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서양만이 유일한 세계사적 보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양(아시아)은 언제나 서양의 부정으로서만 이야기 될 수 있다. 동양(아시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서양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된다.⁴⁸⁾ 동양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서양의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양론이 궁극적으로 반서양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식민지 극장의 무대 위에서 동양 대 서양의 표상놀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인의 ‘동양인’되기는 간단한 일이었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식민지인이 진정한 동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갱생(更生)이 필요했다. 동양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노란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일이 아니었다. ‘비(非)국민’이 ‘국민(國民)’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황국신민(皇國臣民)’이 된다는 것을 뜻했다. <개화촌>에서 서양 추종주의자인 현익(기독교도, 미국유학, 미션계 전문학교 교수, 미국여자와 결혼)과 애라(기독교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준석은 동양주의자 재욱의 감화를 받고서 서양을 흠모한 부모의 원죄를 가미가제 특공대 지원병이 되는 것으로써 대신 씻는다. 가미가제 특공대원이 되는 것을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 비유함으로써 일본을 위한 희생의 의미를 민족적 전통에서 찾아 합리화하려고 한다. 4막 2장은 가미가제 특

47) 교야스 노부쿠니, 앞의 책, 56-59면.

48) 사카이 나오키, 이규수 역, 『국민주의의 포에시즈』, 창비, 2003, 51면.

공대로 참전했던 준익이 테이테 전투에서 자살공격을 감행하고 전사한 뒤에 치러지는 위령제 장면이다. 준익(오하라 헤이쵸 병장)의 죽음은 “일본정신의 극치”이자 “내선의 정신적 결합을 실증하는 것”으로 칭송된다. 아들 준익의 목숨을 제국 일본에 헌납하는 희생제의를 통해서 비로소 서양숭배주의자 현익과 애리는 일본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현익 : 사실 나도 그날 밤 침으로 처자에 대한 참된 룬정이란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소... 나라의 은혜 부부와 부자형제의 정리, 친구의 신의, 우리가 가진 온갖 미풍양속이 모다 새삼스럽게 그럽고 고마운 생각이 나서 그냥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었소.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이튿날 다시 형무소로 들어가서 석 달만에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도 말하자면 순전히 그 애 덕이지요.

(...)

재욱 : 오하라군은 결코 죽지 않았습시다. 크게 죽는 것은 크게 사는 것이니까요.

현익 : 네 그렇지요...⁴⁹⁾

<개화촌>에서 중요한 인물은 천황을 위해 자살공격으로 산화하는 준석이 아니라 서양숭배주의자에서 국민으로 갱생하는 현익이 된다. 서양을 버리고 ‘동양인’으로 돌아온 현익은 황국신민의식을 깨우치고 국민으로 거듭나는 입체적 인물이므로 이 극의 주요인물로 기능한다. 따라서 준석의 위령제는 현익의 국민 되기를 위한 통과제 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인의 국민 되기는 처절한 희생 없이, 속죄양 없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병의 죽음을 담보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했던 것이다.⁵⁰⁾ 국민이 되기 위해 병사, 또는

49) 조천석, <개화촌>, 368면.

전사가 싸워야 하는 공간은 매우 다양했다. 창공이든, 바다든, 대륙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양인’으로, ‘국민’으로 갱생하기 위한 값비싼 희생 제의를 치러야만 했다.⁵¹⁾

이것은 <새벽길>이나 <빙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새벽길>에서 서양승배주의자였던 영철은 미국유학을 떠나려하다가 몸을 망치고 귀국한 뒤 자신과 일가를 망하게 만든 모리슨을 죽인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형사에게 포승줄로 묶여가는 영철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에서 홍도가 변주된 인물인데, 자신의 전 애인 몸에서 태어난 혼혈아 헨리를 ‘동양인’(일본 국민)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속죄양에 다름 아닌 것이다. 모리슨에게 복수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혼혈아 헨리가 “어머니가 받은 그 원한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यो 그 유산인 원한을 놔들에게 보기 좋게 앙가푸리 해 주어야 할 사람”⁵²⁾이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으로서 혼혈아 헨리가 필요했던 것은 그가 서양인에게 더 잘 복수할 인물이기 때문인 것이다. <빙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순영이 혼자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러시아 연해주 땅에 남아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조를 더럽힌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주인공 박영철이 국민으로 갱생하기 위한 속죄양이 되기 위함이기도 하다. 식민지인 박영철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애인 순영의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무라우에 선장과 힘을 합쳐 표도르스키를 물리친 영철은 순영의 희생을 통해 비로소 황국신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는 무라우에의 배 위에서 “선장... 고마워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하지만 죽는 것만은 할 수 있어요. 선장 나를 데리고 가서 멋지게 죽여주세요.”⁵³⁾라고 외친다. 그가 귀국하면 기다리는 것은 중일전쟁의

50) 김옥란, 「국민연극의 욕망과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2007.4, 112면.

51) 박명진, 「1940년대 시나리오에 있어서의 파시즘 담론」, 『한국극예술과 국민/국가의 무의식』, 연극과인간, 2006, 236-243면.

52) 임선규, <새벽길>, 259면.

전장이었다. 즉, 죽음뿐이다. 드디어 국체를 위해서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일본 국민이 탄생한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순영이 결코 돌아올 수 없었던 것, 그러한 눈물의 서사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제국의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국민연극에서 멜로드라마적인 눈물의 희생제이가 요구되었던 것은 이러한 까닭이었다.

참고문헌

- 이재명 편, 《해방 전 공연회곡집3》, 평민사, 2004.
 이재명 편, 《해방 전 공연회곡집5》, 평민사, 2004.
 김규동 · 김병걸 편, 《친일문학작품선집2》, 실천문학사, 1986.
 강상중, 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김기란, 「임선규 장막극 「새벽길」의 극작법 연구」, 『해방전 공연회곡과 상영 시나리오의 이해』, 평민사, 2005.
 김옥란, 「국민연극의 욕망과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2007.4.
 박명진, 『한국극예술과 국민/국가의 무의식』, 연극과인간, 2006.
 서연호, 『식민지시대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양승국, 「국민연극론의 현실」, 『해방전 공연회곡과 상영 시나리오의 이해』, 평민사, 2005.
 이상우, 『근대극의 풍경』, 연극과인간, 2004.
 이상우, 「표상으로서의 망국사 이야기」,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2007.4.
 임지현 · 사카이 나오키,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2003.
 최재서, 노상래 역, 『전환기의 조선문학』(1943), 영남대출판부, 2006.
 가라타니 고진, 「미술관으로서의 역사」, 하루오 시라네 · 스텝키 토미 편, 왕숙현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고야스 노부쿠니, 이승연 역,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2005.

53) 임선규, <빙화>, 177면.

- 다케우치 요시미, 서광석 · 백지운 역,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
- 모테기 도시오, 『국민국가 건설과 내국 식민지 - 중국 변경의 ‘해방’』, 임지현 · 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4.
- 사카이 나오키, 이규수 역, 『국민주의의 포에시스』, 창비, 2003.
- 오구마 에이지,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 네오클레우스 마크, 정준영 역, 『파시즘』, 이후, 2002.
- 바루마, 이언 · 마겔릿, 아비샤이, 송충기 역, 『옥시덴탈리즘 : 반서양주의의 기원을 찾아서』, 민음사, 2007.
- 사이드, 에드워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 아렌트, 한나, 이진우 · 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1』, 한길사, 2006.
- 첸, 샤오메이, 정진배 · 김정아 역, 『옥시덴탈리즘』, 강, 2001.
- 하르투니언, 해리, 윤영실 · 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 河上徹太郎 外, 『近代の超克』, 東京 : 創元社, 1943.
- Chen, Xiaomei, Occidentalism as Counterdiscourse : “He Shang” in Post-Mao China, *Critical Inquiry*, Vol.18, No.4, Summer, 1992.
- Dines, Gail, King Kong and the White Woman : *Hustler Magazine and the Demonization of Black Masculinity*, *Genre, Race, and Class in Media*, Thousand Oaks : Sage, 2003.
- Kashiwagi Hiroshi, On Rationalization and the National Lifestyle, *Being Modern in Japa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Abstract

The Greater East Asia as Imaginative Geography
-the occidentalism and racism in the colonial Korean plays in early 1940's-

Lee, Sang-w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occidentalism and racism in colonial Korean plays in early 1940's. Many Korean plays in later colonial period, especially in early 1940's, had the characteristics which oriented to the ideas of anti-the West and anti-the White people, because imperial Japan which had ruled colonial Korea, was making the war to the West,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t that time. Colonial Korean playwrights had to write plays which corresponded to Japanese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大東亞共榮圈) for taking permission of performing their works in the official theaters. Of course, Japan's enforcement wasn't the single reason for colonial Korean playwrights to write works as like that. Partially, some colonial Korean playwrights spontaneously wrote works which had the tendency of anti-the West and anti-the White, because they willingly agreed with those ideas which was opposed to the western values as like liberalism, individualism, democratism, capitalism and so on. These ideas were called 'the discourse of the oriental(Toyo, 東洋)', which was invented by the conservative Japanese intellectuals for rationalizing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t that time. The ideas of the Greater East Asia were based on the idea of imaginative geography which means that 'the West' represent the material civilization, the modernity, otherwise 'the East' represent the spiritual civilization, the tradition. Some Korean playwrights agreed with the ideas imaginative geography from the inside because they believed East Asian people together had to unite around imperial Japan, and struggle

to the West, the White people. Im Seon-Kyu's plays “Binghwa(the iced flower)”, “Saebyukgil(the road at dawn)”, and Cho Chun-seok's play “Gaehwachon(the enlightening town)” were representative of those works which supported the ideas of the Greater East Asia. In those works, we investigated how making of female characters related with melodrama's codes, and how the pursuit of the Greater East Asia's ideal made work's protagonists to the state of 'being nation'.

Key words : occidentalism, racism, imaginative geography, the Greater East Asia,
the discourse of the oriental

접 수 일 : 2008년 2월 25일
심사기간 : 2008년 3월 1~22일
게재결정 : 2008년 3월 22일